

## 1. 교회재정의 신학적 확립 필요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 경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속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한국 경제는 기초의 부실로 말미암아 IMF라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급성장 과정은 한국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교회재정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규모가 급성장하게 됨으로 자연히 재정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고 한국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 2. 헌금 수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제언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헌금의 양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모으고 헌금의 질(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교회 내에 스며든 물질주의적 가치는 암묵적으로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기준처럼 되어 버렸고, 이러한 사고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는 소극적인 반면, 목회자들의 '헌금강조'를 넘어서 '헌금강요'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성경적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성경적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은, 헌금 교육 및 헌금에 대한 언급 이전에, 평소 목회자의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목회자의 헌금 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교회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이 자칫 헌금 강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헌금신학'과 '교회재정'관련 과목을 편성하여,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헌금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1)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재정사고는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이 재정집행에 관한 일체를 담당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집행에 관한 일체는 제직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두 명의 개인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다. 재정사고의 방지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집행 기준안 혹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결정과 집행, 변경사항 처리 등은 개인이 아닌 각각 재직회, 당회, 재정부가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사를 하되 가능하면 교회 외부의 전문가 팀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소형 교회의 경우 감사의뢰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로 인해서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 감사의 문제는 재정을 집행한 자가 자신의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는 비상식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사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으로 적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외부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도 좋겠다.

① 중소형 교회를 위해서는, 중대형 교회 내에 있는 감사 전문가 혹은 전문팀이 감사해주는 방법이 있겠다.

② 이런 감사 전문가나 팀이 있는 교회의 경우 서로 비슷한 다른 교회와 맞바꾸어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다.

③ 교인으로 구성된 감사전문팀을 구성하여 대행해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 2) 교회 밖 재정사용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밖을 위한 비용 특히 사회봉사나 구제를 위한 비용에는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교회마다 교회 밖 예산을 늘리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익숙해져온 ‘증액예산편성’의 습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액예산편성방법은 지난해의 예산편성 안을 기초로 해서 교회 내의 모든 부서에 동일한 퍼센트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따른 예산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 해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는 개념으로 해당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당한 편성이유를 조직의 비전에 근거해 편성하는 예산편성방법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통장 무 잔고 원칙’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교회 밖 재정 사용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① 경제적 자활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봉사사역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등을 통한 창업지원 및 빈곤층의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장기적 지원방식이다.

② 교회가 사회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참여 방식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암 조기 진단,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안전(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범죄예방 등), 교육(문맹퇴치, 컴퓨터, 장애아 지원 등), 환경(재활용, 유해화학약품 사용금지, 포장지 줄이기 등), 지역사회와 경제개발(저금리 주택 임대)을 위한 지원, 그 외에 노숙자 지원, 인종차별 반대, 공익광고 등을 위한 지원들 들 수 있다.

③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성경적,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교회가 윤리경영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회책임투자’가 있겠다.

이러한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의 교회 간 연대 혹은 교단 내의 노회 혹은 시찰회 단위에서도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 교회는 개 교회의 이름만을 내려는 생색내기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회 간 네트워킹의 활성화로 구제봉사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  
김승호 : 한성교회 담임목사

※ 이 글은 지난 2006년 4월 24일에 있었던 ‘교회 재정의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의 발제문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 ‘건강한 교회재정원칙 확립네트워크’  
>